

백 마디 구호보다 한가지 실천을



재단이사장 이 강 희

우리 인항의 졸업생이 배출될 때마다 저는 우리 인항인이 앞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학문을 훌륭히 수양할 수 있는 대학의 동량으로,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민주사회 시민으로 손색 없음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늘 부족해 보이기만 하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도 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노파심마저 불식시키기라도 하듯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인항인 여러분은 그 동안 선배들이 다져왔던 학통을 유지·발전시키는데 조금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졸업생은 졸업생대로 최선을

다해 수험 생활에 임했었고, 재학생은 재학생대로 전국 고교 외국어 경시대회에서 장려상을 획득하고, 전국 고교 씨름대회에서 우수상을 휩쓸기도 하는 등 최선을 다하는 한해를 보냈습니다.

인항인 여러분!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생활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했듯이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으로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당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오지 않을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음을 명심하고 후회없는 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올해로 졸업을 맞이한 학생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러분이 어색한 모습으로 인항고등학교와 인연을 맺은 것이 엇그제 같을 텐데 벌써 졸업생이라고 하니까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았음을 실감할 것입니다. 올해 3학년으로, 2학년으로 진학하는 학생들도 이 점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의 부모님과 스승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으로는 여러분 곁에 있었지만 몸과 마음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생활을 하지 못해 여러분에게 미안한 마음이 항상 가슴 한 구석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이 공부하고, 자신의 역량을 쌓아가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 곁에서 애써 주심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인항고와 인연을 맺을 당시에 여러분은 아직 계발되지 않은 가능성에 불과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인항에서 여러 스승들의 교육을 통해, 또 여러분 자신의 연마를 통해 그 막연하였던 가능성이 오늘에 와서는 확실한 능력과 실력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실을 맺기까지 헌신과 봉사로 뒷바라지 해 주신 스승이 없었던들 가능한 일이거나 했겠습니까.

또한 소정의 과정을 마쳤다는 것은 곧 새로운 배움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 학년을 마쳤거나, 고교과정을 마쳤거나 그것은 배움의 출발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의 배움에는 끝이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의 세계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나날이 급증하여 하루의 나태와 정체가 일년의 후퇴를 낳으며 오늘의 첨단이 내일의 구태가 되고 어제의 지성이 오늘의 무지가 되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더욱 치열한 향학열로 배움에 매진하지 않는다면 시대의 열차는 여러분들을 지나쳐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인항인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의 세계는 여러분들의 창조적인 사고와 강인한 도전의지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21세기를 눈 앞에 둔 우리가 민족사의 앞날을 가능할 치열한 세계의 경쟁 시대에 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식과 기술의 무

한경쟁으로 대표되는 경제 전쟁은 새로운 사고와 최첨단의 과학기술을 겸비한 민족만이 번영할 수 있음을 현실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 정부와 기업 그리고 학교에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제도와 규범의 창조를 위한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졸업과 진학을 축하하기에 앞서 여러분이 창조적인 사고와 강인한 도전의지를 함양해 달라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현실 인식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적 소명이 인항에서 사색하고 준비한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졸업생 여러분의 승전보가 국내 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날아오기를 전 인항인과 함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재학생 여러분의 정진을 기원합니다.

“

세계는
여러분들의
창조적인 사고와
강인한 도전의지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는
것입니다.

”